

클래식 음악교육 A에서 Z까지

'전남중등음악사랑연구회' 홈페이지 화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때마다 발행하는 팸플릿은 기존의 공연 안내 팸플릿과는 다르다. 30여페이지의 두툼한 분량에 연주곡 목록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곁들여져 있어 '음악 소사전' 역할을 한다.

지난 20일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인 곡목은 관객들에게 다소 낯선 레스피기의 곡 '로마의 소나무'. 이날 배부된 팸플릿에 실린 '악보로 보는 로마의 소나무' 자료는 이 곡을 처음 접한 관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

자료를 제공한 곳은 '전남중등음악사랑연구회'(회장·윤영숙 이하 음악연구회)다. 음악교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음악연구회 홈페이지(<http://jnmuse.cnei.or.kr>)는 '클래식 음악 보물 창고'다.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끼는 일반인들이나, 초중고생들이 '즐거찾기'해 두면 클래식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음악교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답게, 클래식 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클래식의 A부터 Z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누적 방문객이 74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음악연구회의 출발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음악과 수업 장학요원으로 활동하던 몇몇 교사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의기투합해

음악 교사들이 운영... 각종 자료 '한 눈에'
장르별·악기별 감상 코너 4천여곡 수록
초중고생·일반인 방문객 740만명 돌파



전남중등음악사랑연구회 사이트 홈페이지

모임을 꾸렸다. 학교 음악 교육에 변화를 줘 '신나고 즐거운' 음악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현재는 회장을 포함, 김유숙(영광여중), 김상윤(장흥회덕중), 차은주(완도금당중), 강창완(고흥금산중)씨 등 11명의 연구위원이 끊임없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는 이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악기 소개 음악사, 음악용어 등 다양한 음악 이론들을 청소년들

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궁금증을 풀어준다.

음악연구회가 가장 자랑하는 분야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다. 현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곡은 모두 4천여곡, 교과서에 실린 곡 뿐 아니라 좋은 곡들을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들려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 1, 중 2, 중 3, 고등학교별로 세세하게 카테고리를 나눠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설이 있는 감상실, 성악곡

과 오페라 감상실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재미있는 코너는 '비교 감상실'. 유명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형태로 들을 수 있는 코너다. 파렐렐의 '캐논'의 경우 정통 클래식 연주부터 랩, 팝송까지 수십 가지 버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또 같은 곡을 각기 다른 악기로 들어보는 '악기별 감상실' 역시 흥미롭다.

그밖에 음악교사들에게 유용한 각종 교육 자료들도 잘 정리돼 있다. 교사들의 경우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음악연구회는 앞으로 전국 음악단체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키고 클래식 음악회를 비롯한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공간도 준비중이다.

최근에는 학생과 교사 뿐 아니라 일반인 클래식 초보자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의외로 클래식 음악 감상 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홈페이지 운영을 맡고 있는 오승국(영광 남주중 교감)씨는 "클래식 음악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올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학생, 교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있어 클래식 대중화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한마당

28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이병렬)은 2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010 빛고을정월대보름한마당'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박물관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기원마당, 놀이마당, 공연·체험마당, 나눔마당 등 4마당으로 펼쳐진다.

광주의 평안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마당과 길놀이, 당산제, 마당밭이 등이 전통행사로 놀이의 막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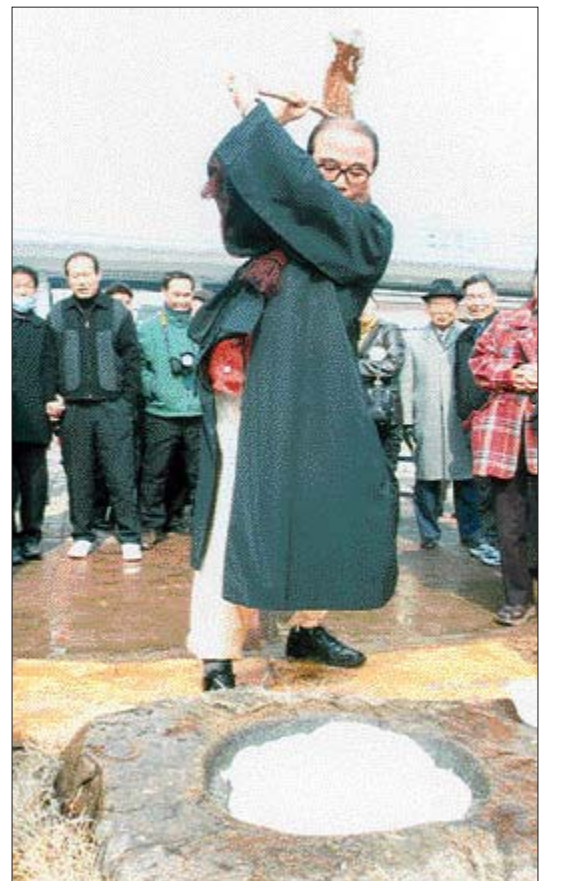
민속놀이 경연은 율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투호놀이, 닭싸움, 가쪽줄넘기, 창작연 날리기 등으로 펼쳐진다. 예선과 결선 두 단계로 나눠 열리며,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공연·체험마당은 공연과 줄다리기, 닭잡기놀이, 고전머리장식 체험 등으로 꾸러지고, 황승옥 가야금예술팀의 남도민요와 가야금 병창, 내드름 예술단의 북춤 공연 등이 곁들여진다.

나눔마당에서는 먹거리장터, 가훈쭈주기, 복조리만들기, 추어의 뿔튀기와 불어뿔 등이 운영된다.

한편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시립민속박물관의 정월대보름 행사는 해마다 수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인기 프로그램이며, 지난해에는 1만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문의 062-613-533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시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한 참석자가 떡메를 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비엔날레 시민 사진 공모 인기

'생오지' 제5기 수강생 모집

10일 만에 500여 점 접수

1만 점 모일 때까지 계속

오는 9월 개막하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시민 사진 공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5일 "주제인 '만인보(10,000 Lives)'와 연계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시민사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거나 가족의 단란한 모습, 지역의 유명 관광지 등을 배경으로 한 단체사진 등 접수된 사진의 종류도 다양하다.

재단은 사진공모에 기간 제한은 따르지 않고 주제인 '만인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만점이 모일 때까지 공모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설가 문순태씨가 운영하는 '문학의 집 생오지'가 작가 양성을 위한 제5기 소설 창작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소설 창작 입문 과정인 소설 창작 기초반과 등단목표로 하는 소설 창작 심화반으로 나눠 모집한다. 인원은 기초반 20명, 심화반 15명이다. 기초반은 2월 말까지 면담을 거쳐 선발하고 심화반은 단편 1편을 e메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선발한다. 개강은 기초반 3월 6일, 심화반은 3월 7일이다. 문의 061-381-24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신도그린투어</p> <p>신도그린투어</p> <p>신도그린투어</p>	<p>국내여행의</p> <p>국내여행의</p> <p>국내여행의</p>	<p>제주도</p> <p>제주도</p> <p>제주도</p>	<p>일본관광</p> <p>일본관광</p> <p>일본관광</p>
--	---	---	--

헬스킹 기능화

신발이 아니라 개학을 하는데!

Product Composition

헬스킹코리아

가발

남성 헤어 기능장터

大山프리모남녀가발

초슬림!!

가격

50만원~